

전설의 影池를 관광財源化

필자가 해외여행에서 부러워한 것은 그들의 전설(傳說)을 과장스럽게 각색한 것 같은 관광지이다.

각 민족이나 국가의 전설내용은 다양하지만 그 근원은 남녀간의 애증이고 이로 인한 애환의 긴 설화(說話)가 되는 공통성이 있으나, 우리의 관점으로는 별것도 아니다 싶은데 의미를 부여하여서 관광재원으로 만들었다.

전설의 내용자체는 자원(資源)이지만 가시물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구현한 볼거리로 투자하여야만 관광재원(財源)이 된다.

부족에서 국가로, 삼국통일과 멸망의 신라 1000년 긴 시간 속에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애환의 전설(傳說)설화(說話)가 있다.

청년 김유신이 천관녀에 대한 절연한 결심 그리고 신검과 단석산, 백제와의 전투에서 화랑관창의 기개 넘친 충정과 신의, 아사달과 아사녀의 애달픈 사랑과 이로 인한 영지와 무영탑 등의 전설비중이 시간을 넘어 우리의 뇌리에 자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무관심한 채로 내려있다.

우리가 여유 없이 삶에 허덕이고 있었어 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이 전설들은 의미가 없기에 무관심하단 말인가. 필자는 문화비평가도 설화문학가는 물론 아니다.

다만 이러한 전설자원을 이용하여서 관광재원의 길을 찾자는 시민일 뿐이고, 일차적으로 그 길을 전설의 영지에서부터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최대명찰 불국사를 창건 당시 아사달은 홀로 서라벌에 와서 불후창작의 조형감각으로 동편 다보탑을 완성하고 서편 석가탑의 마무리 공정을 지시 감독하고 있었다.

한편 아사녀는 소식 없는 그리운 지아비를 만나려고 불원천리 불국사를 찾아왔으나 주지는 아사달의 조형감각이 흔들릴 것을 염려하여, 서남향에 있는 못에 가보면 아사달의 모습이 비쳐질 것이라고 했다.

못 가에서 탑이 완성되는 기다림과 그리움에 지친 아사녀는 떠오른 보름달에 비쳐진 탑의 그림자를 아사달로 환각하고는 지아비를 향해 달려 갈 수밖에 없었다. 석가탑을 완성한 후에야 이를 알게된 아사달은 “어찌 예술이 사랑보다 숭고할 수 있으리요, 천상(天上)에서나마 이 무정한 남편을 그리며 처연히 피리를 불고있을 그대를 만나야겠소”

그리하여 이 못에 그림자가 비쳐진 다보탑을 유영탑(有影塔), 비치지 않은 석가탑을 무영탑(無影塔)이라 하였고, 못은 영지(影池)로 불리었으니, 못 가에는 옛날 이 두 사람을 위해 지은 영사(影寺)에 돌부처가 있으며, 늦가을 청명한 오후에는 불국사가 있는 토함산 그림자가 영지에 비친다. 또한 석가탑에 올라가 보면 바로 앞에 영지가 위치한다는 사실이다.

본보에 문화재 산책을 기고하는 서라벌대학의 이진락 교수에 의하면 불국사는 물론 이 두 탑도 지형학적 이론상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사실적인 애절한 사랑의 전설이 아직도 탈고 안된 채로 용해되어서 지금 우리들 가슴에 잔상(殘像)하는 메시지이며, 무영탑은 흔적이다.

이 전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깊은 사랑, 지아비를 기다리다 지쳐 유명을 달리한 지어미의 범도, 의무를 완수하려는 사명감, 이상을 향한 열정과 자긍심이 영지에 녹아있으나, 보지 않는다.

전설影池를 관광財源화

유명한 스웨덴의 조각가 빙게르만의 조각공원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조성되었다. 북유럽 인 간생사의 과정을 절실하게 생생히 표현한 그의 조각을 보고자 수많은 관람객이 세계도처에서 이곳을 찾는다.

우리나라에도 조상들을 집단으로 전시하는 조각공원이 목포시를 효시로 여러 도시에 우후죽순처럼 조성되고 있다. 본인의 작품만을 전시한 개인적 차원 또는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시나 국가차원의 조각공원으로 대별된다 .

도시당국의 출자로 조성하는 경우는 그 도시의 작가에 국한하거나 전국은 물론 나아가 국제적인 작가로 구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주로 본인의 작품을 내보이고자,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조각공원과 관리유지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비율제로 작품대가를 분배하는 등의 조각공원이 도시환경과 관광자원의 명목으로 조성된다.

그런데 필자는 집단으로 조각을 전시하는 이 일반성 조각공원은 경주의 특성으로 볼 때 불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필자는 조각가이고, 작품의 대부분도 조각공원의 작품처럼 야외용이며 그런 규모로 제작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볼 정도로 흔해진 조각공원의 작품들이 창작이고, 작품마다 각기 다른 내용과 형식 및 재료의 작품이지만 거의가 현대성 표현이라는 내용이고, 형식 또한 기하학적인 비구상 계열이 주류를 이룬다. 이것이 우리나라 조각공원의 대동소이한 성격이고 한계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경주에 조각공원이 불필요하다는 것만은 아니다, 더한 이유는

첫째 경주의 특성상 일반적 조각공원은 관광자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적인 조각공원은 그 자신의 문제이기에 논의의 밖이다. 만약 시(市) 당국이 일반성의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시수(市收)를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전국의 조각공원이 대 규모로 조성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실패 직전상태이다. 왜냐하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동일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조각공원을 찾는다 하여도 그 식상 감으로 하여금 점차로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88올림픽 조각공원에 가면 증명이 될 것이다 만약 어떤 도시가 별다른 관광자원이 없어서 그 일환으로 조각공원을 조성한다고 치자. 시민 이외(以外) 그 누가 조각공원을 찾을 것이며, 수입을 기대한단 말인가. 그러하기에 대부분의 조각공원이 이제는 시민 휴식공간의 심심풀이로서 조경(造景)의 보조역할을 할 뿐이다.

현재 전국의 조각공원 관람객은 뭐도 모르는 소수의 관광객이나 전시작가의 식구들과 그 친구정도이다. 조각가는 물론 미술인조차도 찾지 않는 실정이다.

거제시 외도(外島)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주말에 법석을 이룬다. 그러나 이들이 외도의 조각상을 감상하려고 유람선을 승선하지는 않는다. 코스에 있을 뿐인 조각공원을 스쳐가지만 의도적으로 찾지는 않는다.

신라미술은 조각의 우수함에 있다. 현대의 조각에 비한 그 미적 수준은 천지차이다. 이러한 옛 것의 우수함을 엿보고 깨닫게 할 수 있는 조각이 풍부히 산재한 경주를 관광하면서 한편 바쁘기도 한 일정에 과연 몇 사람이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조각공원을 찾겠는가?

조각공원 조성에는 전시장과 부대시설 및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하고라도 시의 차원이라면 최소한 50여점 이상의 작품비만해도 최소한 10억 이상은 소요된다. 근래 필자에게 출품 의뢰한 경기도 신흥도시의 전시작품구입의 한정금액은 4천만 원이다.

외면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반적인 조각공원의 관리유지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2, 30 억원이 소요되며, 적잖은 투자에 비한 이익기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자도 20여년 전부터 생각해온 것이기도 하지만, 안할말로 조각공원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면 필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개인적인 조각공원이라도 조성하려 들 것이다. 개인적인 조각공원에 관하여서는 차기에 언급하겠다.

둘째,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원도시 경주의 공간환경을 조감하여 보면 인공적인 직선미보다 자연의 무질서가 전개되었으나 균형의 질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자연미의 공간환경과 기하인공미의 조각공원이 조화될 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 뿐더러 경주전통의 역사성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조각공원의 내용은 이미지로도 부합되지 않는다.

언뜻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남이 하니 나도 할거야, 저질러 보자」는 생각은 경주의 특성을 간과한 비전문가의 단순관념일 뿐이다.

국내의 조각공원하면 이제는 감상자도 의미의 되색임자도 없이 한적하기 그지없는 서울시의 88올림픽 조각공원보다도 규모와 내용이 불품 없는 목포의 것이 먼저 연상된다.

이러하듯 후발주자로서 성공하려면 전자를 훨씬 능가하는 무엇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바와 같이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물유적의 도시이다. 이곳에 특별한 의미도 이익도 없는 집단전시의 일반적인 조각공원이 오히려 경주특성에 부조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연히 불필요하다. 그러나 경주의 조각공원은 경주의 특질을 부각하고 관광자원 차원의 경주적 조각공원은 절대로 필요하다.

전설영지의 시립공원화

세계유명 역사문화도시에는 반드시 미술관이 있다. 신라문화유산의 대부분은 미술품이다. 따라서 경주시가 역사문화 거점도시로 변모구색을 갖추자면 이에 걸 맞는 시립미술관건립은 필연적 조건이다.

삼성그룹 이건희회장과 홍라희 부부가 10년간의 열정으로 금년 10월 개관한 리움(Leeum)은 21C의 세계적인 미술관인바,故이병철회장의 미술품과 문화재 컬렉션인 용인市 호암미술관을 바탕으로 서울 한남동에 3명의 세계유명건축가가 합작한 미술전문전시장으로서 그 자체가 건축미술이며 건축미학의 본보기이다. 필자는 물론 이 리움과 같은 미술관을 말하지 않는다.

미술은 음악이나 문학의 발표 장과는 달라서 전시공간을 필요로 한다.

경주서라벌문화회관은 다만 집회와 단기간 전시의 복합목적의 장(場)이지 예술전문용은 아니다. 도내 구미, 포항, 김천 등에도 문화회관이 있고 그 규모에 서라벌회관을 비견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역할의 장이다.

그런데 경주시는 이들 도시와는 달리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예술의 근원이어서 그 뿌리가 굵고 길며, 깊고 많다. 따라서 필자가 말하는 경주시립전설공원 내의 미술관은 실내평면작품과 실외입체작품-전설조각공원포함- 전반에 걸친 상설전시의 전용미술관을 말한다.

현재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가 주최하는 신라미술대전은 전국공모로서 미술가로의 등용문이고 금년으로 25회를 넘겼다. 이러한 市단위전국공모전은 경주시가 최초이고 뿐이다.

국전과 같이 대통령상을 수여하던 市단위주최의 이 공모전에서 여태까지 상금지급으로 수집한 수상작품들은 경주시의 재산이며, 경주시가 역사문화도시라는 증거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입상작품들의 상설전시장이 아직까지도 없다. 지금까지는 시립도서관등 市관계건물에 분산 전시되고 있지만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 이제 신라미술대전도 생산성의 차원으로 변모되어야만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다.

그 활로는 또 하나의 관광재원화로 모색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본다면. 신라미술대전과 연관하는 **경주시립미술관을 건립하여야만** 될 시점에 와 있고 당초에 이러한 계획으로 신라미술대전이 시작되었다.

또한 경주출신의 황술조, 손일봉, 김준식, 손동진은 개화기에 일본을 유학한 서양화가들이며, 박지홍은 선(禪)을 통해서 구상과 비구상을 두루 통달한 한국최고의 동양화가이고, 화공이다. 또 황성공원내의 동산에 세운 한국최대 기마상 김유신장군동상을 제작한 김만술 등, 이 들은 한국현대미술의 개척과 기념비적인 미술가들이다.

이들이 한국미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김동리나 박목월에 못지 않으며 예술계에서는 더 원로이다. 다만 미술이 문학의 구체성이나 서적의 과급효과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널리 회자되지 않을 뿐이지 미술계에서는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후의 최현태, 박재호도 경주미술과 문화향상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다. 최현태는 경주향리에서만 활동했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는 못했지만 최고수준의 사실파화가로서 가히 손색없다. 박재호는 경주예총과 미협지부장으로 1979년 당시 김창곤시장의 지원으로 신라미술대전을 창설했다. 이러한 작가들의 작품은 마땅히 경주시립미술관에 상설전시 되어야만 한다고 미술인과 시민들이 입을 모은다.

한편 무미건조하여 관람자도 없으니 수입도 기대할 수 없는 일반적인 조각공원이 아니라--이는 백상승 현시장의 견해이며 필자도 전적 동감하는 바, 참고로 경기도 일산市에서 조각공원을 조성하고자 필자에게도 의뢰한 제작비한도는 1점당 4천만원이지만 야외의 조소작품으로서의 최저이다.--이처럼 무모하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무관심대상이 일반조각공원의 현실이다.

예술, 미술재능은 자기 자신의 재능과시(?)이고, 나도 어떤 재능을 지녔고, 그래서 누구라도 지닌 재능인데, 그게 그것이지,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리송하기에 무관심한 권태의 하품이 나온다.

그러므로 필자가 구상하는 경주시립미술관의 야외조각공원은 우리의 역사신화, 전설설화의 테마조각공원이다.

우리역사의 인식과 삶의 지혜와 질박한 해학에서 희노애락의 정서와 윤리도덕의 정체가 물씬하게 묻어나는 경주 테마조각공원의 이야기에 귀 세워 흥미의 눈길로 다가올 것이다. 조성방법은 지면상 생략한다

미술관과 테마조각공원을 포함하는 전국최초 **경주시립 전설미술공원**은 신라미술대전과 관련하여 그 공모내용을 당초와 같이 신화전설의 한정주제로 변경공모하면 최소예산으로 전설테마의 신라미술대전과 전설공원의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주시립전설공원은 점차로 관광재원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2004. 12. 14)

23. 경주시립 영지전설公園의 기대치(3)

독자외면의 장문을 우려해서 그 지난 호에 누락한 경주시립전설공원내의 축소시설물 정원-miniature garden-에 관하여 조금 피력하고자 한다

세계의 유명시설물을 축소한 태국의 파타야 미니-시암을 누구라도 관광하였고 추억의 사진도 몇 장 있다. 이러한 실재의 건축 조각 등 미술품을 축소한 miniature garden이 제주도에 2곳의 1만5천평 규모와 서울근교 양재市에도 있지만, 시민은 이를 몰라서인지 경주도 이러한 관광코스를 조성하여야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주는 후발주자이기에 그러한 성격보다는 경주전체의 시설조형물을 축소한 정원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다.

경주의 극히 일부만을 보고 이것뿐인가, 이것가지고 뭐 그리 떠드는가? 조금은 씁쓰레한 기분으로 한국문화의 근원지 경주를 떠난다면 경주관광의 장래가 밝다고 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없는 것도 있는 양하는 현실에 왜 있는 것도 내보이지를 못 하겠는가.

그런데 miniature garden이 관광코스로 자리할 수는 있지만, 구성에 따르는 장시간 소요와 적잖은 투자에 비한 흑자운영도 문제이고, 축소조형물들을 완전재질로는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재질로 제작한 축소물의 변색마모와 균열파손에 따르는 보수관리 등의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다.

그러므로 이미 공통성과 일반화 되 버린 miniature garden보다는 집중적인 주제로 그 효과가 크게 기대할 수 있고, 다목적용 성취할 수 있는 대타(代打)로는 영지(影池)를 개발한 전설(傳說)의 미술공원(美術公園)이다.

영지는 현재 문화재로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기에 못의 제방은 정리하지 않은 상태이며, 도로건너 사유지(私有地) 동산은 송림이며, 중형급 콘도 2동이 있고-한 동은 공사중지- 주위의 환경정리는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그대로라는 것이 원초적인 非인위상태를 뜻한다면, 이 자연그대로는 계속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명은 이 원시자연성을 침범할 수밖에 없음으로서 자연성이나 인위성은 각기 독자상태로 되기가 어렵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혼합 이용하고자 자연을 인위로 가능한 범위에서 가꾸고 보호하지 않으면 원시자연성은 황폐의 무질서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개천에서 용(龍)나고, 돼지우리에서 사람 나기가 그리 쉽던가. 개발 정리된 자연환경은 삶의 정서에 영향 되고, 그 정서가 질서의 바탕이 되어서 합리성이 배양된다고 본다면 그 합리의

식은 시간을 단축해서 생산성을 높여 삶의 양과 질을 향상시켜 왔다.

그러므로 을씨년스럽고 괴괴한 적막이 감도는 황폐직전의 영지를 불원간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하여야 될 진데, 이는 영지가치가 재인식되어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공원조성의 개발방법 뿐일 것이다. 왜냐하면 콘도이외는 지방도로뿐이며 별로 효용도 없고, 인적이 드문 이곳을 우선적으로 환경정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지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주변정돈은 이뤄지겠으나 공원조성은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송림 400평을 매입, 그 부지에 아사달과 아사너, 무영탑과 영지의 연관전설을 상징한 조형물과 전국석재인의 소망인 아사달송모 비의 조형물이 설치된 영지전설소공원을 조성한다면 영지공원화의 시발과 쾌적한 환경조성의 3중 효과를 볼 것으로 사료된다.

2004년 7월에 개장한 영지부근의 토비스콘도와 영지공원을 연관하여 그 기대치를 가름해 본다.

필자는 이 콘도에 조형물을 설치하였지만 이곳 콘도사업의 성공여부를 회의적으로 봤었다. 그런데 콘도개장 첫 주말부터 몰려든 버스 40대의 학생과 70여대의 승용차를 목격하고 놀랐다.

그러나 이들은 전설의 영지가 바로 옆에 있어도 모르고, 전설은 보이지도 않으며, 근방에는 갈 곳도 없기에 그냥 떠나버린다. 만약에 전설의 영지소공원이라도 있다면 그들은 이곳을 찾아 전설의 의미를 되새겨서, 경주를 선전하는 자원봉사자가 될 것이다.

10개년 1차 계획으로 조성된 영지전설 소공원 2006년 ×월 ××일 준공식 겸 아사달송모 제(祭)에 전국 20만 석재관계자의 참가는 2004 눈높이컵 축구대회 참가자 25만으로 120억대의 경제효과 못지 않을 것이라는 상상은 망상만이 아닐 것이다.

또한 10년간 2, 3차에 걸쳐 연차적으로 투자 조성된 경주시립 신화전설조각공원과 시립미술관을 찾는 4계절의 관광객이나 미술관계자 등 그 수(數)가 점차 증가하면 하지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계상으로 하여금 조성사업의 타력이 발동된다. 그리고 휘둘러 두드리니 홈런이 되었다.(2004. 12. 27)

적막이 감도는 영지전경 사진